

해외신간

미국불교의 모습

찰스 프레비쉬와 케네디 다나카 등이 공동 저술한 <미국불교의 모습>(The Face of Buddhism in America)에는 미국인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스님과 명사가 19명의 수행과 행실이 조망됐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교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심원한 불교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책. 각 장은 전통적인 명상뿐만 아니라 '미국화'된 불교 즉, 페미니즘·심리요법·환경보호 등과 접목된 불교를 소개한다.

찰스 프레비쉬는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불교의 모습은 결국 불교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판의 한 조각"이라고 강조한다. California Press. ISBN 052013017.



나의 삶 그대에게

서구의 대표적 인 비구니 아야케 마(Ayya Khema)의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의 길을 엿볼 수 있는 <나의 삶 그대에게(I Give You My Life: The Autobiography of a Western Buddhist Nun)>가 출간됐다.

깨달 초도집 등 제자 10여명이 저술한 이 책에는 2차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탈출해 캘리포니아의 광범한 여성으로서, 후주의 농부로서, 지구촌 유랑민으로서 그리고 55세 나이로 출가한 비구니로서 살아온 아이케마스님의 삶이 부연됐다.

스님은 세계여성불교대회에 결성하고, 미국과 유럽에 비구니 사찰을 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Shambhala. ISBN 1570624151.



게송 308수로 기신론 요약

전종식씨 '대승기신론 강의'

영문번역본 별책 구성

한글·영문 번역과 함께 저자의 해설을 곁들이고, 내용 전체를 저자 자신이 지은 308수의 게송으로 요약 풀이한 <대승기신론> 번역서가 나왔다.

전종식씨(강남대 종교철학과 강사)가 편찬 <대승기신론 강의>(한국어전문회원 판)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여타 번역서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우리말로 영어 두 가지로 번역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영문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어려운 부분들은 해설문장을 추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 번역본은 별책으로도 구성했다.

또 다른 특징은 전체의 구역(篇)을 저본으로 삼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신·구역 대표를 만들어 원문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대승기신론>은 인도의 마명보살이 저술한 것으로 양나라 진제상장과 당나라 실차난타의 한역본 두 가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진제역본을 구역으로 실차난타의 역본을 신역으로 부른다.

<대승기신론>의 전체 내용을 역자가 3·4·4·4조에 맞춰 308수의 게송으로 요약 풀이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대승기신론>의 내용 전체를 읽지 않고 게송만 보더라도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대승기신론(頌)>이라는 별책에 담았다. 값 1만9천원(별책 2권 포함)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죽음은 삶의 온전한 거울

소갈 린포체 '티베트의 지혜' 오진탁교수 번역

우리는 죽음을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온갖 탐욕과 거짓, 이기심에 휩싸여 살면서도 죽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티베트인들은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사색을 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삶의 마지막 단계로 여길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에 대한 혼란은 없다. 이런 티베트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색' 중심에는 바로 불교가 있다.

'삶을 내려 놓으면 삶이 보인다'

불교의 가르침 함축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이자, 위대한 라마들이 가르쳐 온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 옮긴 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는 "삶을 위해 삶을 내려 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 이 책의 매력은 이 가르침을 쉽게 공감케 하는 데 있다. 불교는 삶에 있어 궁극적으로 아무런

한계도 없는 자유를 제시한다. 그런 자유는 지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충실히 닦은 사람에게 죽음은 페배이기는 커녕 승리이자 삶의 가장 영광스런 성취라고 소갈 린포체는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 '바르도'를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바르도(bardo)'란 티베트어로 한 상황의 완성과 다른 상황의 시작 사이에 걸쳐 있는 '과도기'라는 뜻. 이 '바르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일삼 직인 삶,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 죽음 이후, 환생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본다. '바로 지금의 삶'조차도 '바르도'로 이해하는 데에는 윤회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헤맬의 기회가 삶과 죽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시됨을 의미한다.

'내일 또는 다음의 생,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들여다보는 소갈 린포체의 말은 '삶의 무상함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바로 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죽음에 대한 사색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색임을 이 책은 가르친다. 값 2만원.

'제경요집' 등 한글대장경 5권 나와

동국대 역경원(원장 윌운)이 한글대장경 <제경요집> <살바다비니비바사 외> <십주단결경 외> <불공견삭신변진언경> <대반열반경> 등을 펴냈다.

<제경요집>은 200여 종의 경·율·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법연(說法緣) 창법연(聽法緣) 등의 부류별로 뽑아 엮은 불교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다. <살바다비니비바사>는 설일체유부의 계율을 정리해 놓은 율장으로, 유부 계율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것으로 어떻게 10지(地)의 수행을 닦아 나가는지에 대해 실한 경전이다. <십주단결경 외>에는 <관세음보살수살경> <불설관악왕약상이보살경> 등 6개의 경전이 번역돼 있다. <불공견삭신변진언경>은 불공견삭 관음보살의 진언 다라니·염송법·만다라·수인(手印)·공덕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반열반경>은 담무참에 의해 한역된, 40권 13품으로 구성된 <대반열반경>을 번역해 놓은 것. 여기에는 20권 9품까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각 권 1만5천원.

한명우 기자

시로 쓴 구도역정

김연식 시집 '감로의 문'

중견 여류시인 김연식씨(60)는 마치 수행자가 정진하는 듯한 자세로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금까지 발표한 시집이 그렇듯이, 이번 열두 번째 시집 <감로의 문>(청학 판)에서도 그의 깊은 불심은 알알이 드러난다.



시인은 구도역정과 시심(詩心)이 곧 불심임을 노래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로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일 따름이다. 모든 감각과 지식은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는 탓일까. 자신에게 실체가 있는 유일한 것은 '감로의 문' 뿐임을 김시인은 노래한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허 운	여시이문
3	기쁨을 적는 부처님 말씀 3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4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림
5	사찰	대 혜	불광
6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의	불교시대사
7	산에는 꽃이피네(대)	법 정	동쪽나라
8	소원성취 기도법	영우서원장	정우서적
9	화두 있는 법	보통 권경부	토방
10	영명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대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교육의 중심 종교

'여교원 원조제' '고베시 아동연애 살인사건' 등 청소년이 일으킨 사건들로 청소년의 윤리관이 일본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교육의 중심 종교>를 펴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체험한 종교교육의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제1부 '현대 일본의 종교교육'에서는 일본 불교계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효과를 소개하고, 제2부 '종교교육의 국제비교'에서는 한국·말레이시아 등의 종교교육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新書館 刊

육바라밀다

정각스님 지음

보살수행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다'를 대승 불교 보살 수행의 실천 원리로 꼽는다. '육바라밀다'의 행(行)은 신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자 삼계를 초월하는 법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행복에 이르는 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육바라밀다' 수행의 요점을 간략하게 서술한 입문서다.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육바라밀다'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다. 그리고 바라밀다의 실천은 또 다른 세계 속에서가 아닌 '현실' 가운데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강조했다. 저자 정각스님은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초록, 3천원>

한국문화의 뿌리를...

코벨 지음

외국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문화



외국 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문화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미국의 교육학자 존 카터 코벨이 한국문화의 독자적인 본질을 추적한 책이다. 한국문화의 고질적인 중국 선호사상을 벗고 한국 자신이 그 문화의 주인공임을 한국의 유물과 스님, 예술가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불교의 선화(禪畫)를 전공한 탓인지, 저자는 이 책 내용의 상당부분을 불교 사상과 유물에 할애하고 있다. 백제·신라의 불상과 탑, 원호·의상스님, 석굴암, 미륵보살유상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사상과 유물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망했다. 역자는 전 경향신문 문화부장 김유경씨. <학고재, 1만7천원>

종교와 사회윤리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고대 인도 종교의 '사회이상' 추적



인류문화의 지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신의 지위를 점유했고 있었던 사상은 주로 종교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떤 사회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 <종교와 사회윤리>는 고대 인도 종교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종교학 개론서다. 바라문교·자이나교·외사불교의 경제윤리를 비롯해 아쇼카왕의 종교정책과 대승불교의 경제·사회정책 및 붓사정신 등을 소재로 종교의 '사회이상'을 추적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종교와 사회윤리>고대 종교와 사회이상'을 오진스님(일본 동방대학 강사)이 번역했다. <경서원, 2만5천원>

여시이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이문은 '물은 바. 먼 지의 어둠도 없이 건너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주소: 서울구 경계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승(大衆)스님 옮김
86면형 278쪽 / 김5,500원 / 여시이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301-선(禪)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일과 내태, 그리고 온갖 이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윤기이의 말 중에서)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5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선사의 교현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입념으로 관조와 명상을 하였으며 33세에는 천대산 용현암 용정 노화상에 계를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교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만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역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풍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르침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합개소의 가량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행한 제자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수 록 내 용

-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 제2장 선방 방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계석보다시증(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 제2부 선법 방문
부 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